



◀'가이아의 도시'전에서 볼 수 있는 알베로 작 '식물의 고요한 비명'. <ACC 제공>

인형극부터 공연·전시까지...우리우리 설날엔 더 재밋지

"까치까지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설날 연휴를 맞아 문화예술기관들이 전통의 의미도 되새기고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ACC는 설 연휴 기간 화제가 되고 있는 전시를 비롯해 집에서 볼 수 있는 공연 영상 한 보따리를 준비했다.
연휴 기간 가장 기대되는 전시는 해항도시와 문화를 모티브로 한 '디어 바바노냐: 해항도시 속 혼합문화', 아시아 건축을 소재로 한 전시 '이음지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모색해보는 '가이아의 도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연초, 연말에 개막돼 해항문화와 건축, 자연 등을 다채롭게 조명할 수 있게 구성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복합1관에서 '디어 바바노냐: 해항도시 속 혼합문화'는 해항도시와 연계된 문화를 미디어아트 등으로 풀어낸 콘텐트다. 바다와 관계있는 도시들인 인도 코치, 말레이시아 말라카, 중국 취안저우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복합2관에서는 미술의 언어를 매개로 아시아 건축을 훑어보는 '이음지음'이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의 도시 경관들이 내재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콘텐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전통과 현재는 흐름을 매개로 공존한다는 데서 착안했다.
복합전시 3·4관에서 볼 수 있는 '가이아의 도시'는 식물과 인간의 관계를 사유해볼 수 있는 콘텐트다. 전시는 각각 자연과 문명을 대변하는 두 주체의 공존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는 '문순으로 열린 세계'를 볼 수 있다. 문순을 따라 전개된 해상 실크로드에서의 교역과 문화교류, 항구도시를 오간 이들이 만들어낸 고유한 문화와 예술작품을 선보인다.

ACC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편히 볼 수 있는 어린이극을 비롯해, 연극, 무용극 등 문화예술 공연도 준비했다. 16일까지 비대면 공연 상영 '설날은 ACC와 함께'를 ACC 유튜브 채널과 문화포털에서 운영한다.
이번 상영작은 어린이극 '어둠시나'를 비롯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 국제공동창·제작 시범공연 '보따리', '숨바꼭질', '술직히' 등 5종이다.
'어둠시나'는 한국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2024년 서울어린이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했다. 사람의 관심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전통 요괴 '어둠시나'와 세상을 피해 어둠속에 들어온 인간 아이가 상처를 보듬으며 존재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한국과 아시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은 '2023년 춘천인형극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다양한 집의 형태를 팝업북과 종이예술로 담았다. 마음의 집을 튼튼하게 세우고 지키는 방법을 두 가지의 재미난 이야기로 전달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재단)
ACC재단도 9·10일 이틀간 어린이문화원 설 특별행사 '다복다복 설날맞이'를 마련했다.
정릉의 해 갑진년을 맞아 '정릉'을 활용한 창작체험, 포토존, 공연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에서 열리는 '새해는 언제 시작될까'는 카자흐스탄의 명절 '나우리즈'와 관련된 양, 토끼 등 동물들을 모티브로 콜라주 액자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카자흐스탄 유목민의 민화를 토대로 창작한 인형극 '세 친구'는 9일(오전 11시, 오후 3시), 10일(오후 2시) ACC 어린이극장 무대에서 볼 수 있다.

아울러 '푸른 울 짝지 만들기', '소원 가득 병풍 만들기', '나만의 옷놀이 만들기' 등 설날을 즐길 수 있는 전통 놀이도구 만들기 체험은 어린이체험관에서 참가할 수 있다. 어린이문화원 캐릭터 '고니(곰)'를 활용한 타투체험과 신년 길흥화복을 점치는 '오라차 차 웃점 한판!'을 비롯해 '복주머니 소원나무', 인도네시아 전통놀이 라리까유 등을 즐기는 '아시아 전통놀이마당'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은 어린이 문화원 앞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어린이문화원은 12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 13일은 휴관) 운영한다. 무료 체험. 선착순 참여.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예술의전당은 '까치까지 설날은 어저께고요'라는 주제로 설 특별공연을 펼친다. 9일 오후 5시 광주상설마루(서구 상무시민로3)에서 문화기획 고리가 국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생활과 단소의 2중주인 생소병주 '수룡음'은 국가 무형문화재 손범주가 생활, 관대규가 단소 연주를 들려준다. 불속의 용이 울조된다는 의미의 '수룡음'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가곡 중 계면조의 반주곡을 관악기로만 연주할 수 있게 변주한 작품이다.
국악버전으로 듣는 '까치까지 설날은 어저께고요'의 품 무등산, 차례상을 준비하는 모습을 노래와 연주로 구성한 무대 등 설날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작품들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10일에는 퓨전국악그룹 화양연화가 공연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를 진행한다. 이남지밴드가 불러 이목을 끌었던 '범 내려온다'부터 '소녀', '난감하네' 등 대중적인 국악곡을 현대적 감성에 맞게 편곡해 관객들을 찾아온다는 계획이다. 전남대 음악교육과 교수인 바리톤 방대진은 이탈리아 칸초네 '볼라레'를 특별 공연으로 들려준다. 전석 무료.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문화기획 고리의 공연 장면.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ACC
'해항도시 속 혼합 문화'·'이음지음'·'가이아의 도시'
ACC재단
중앙아시아 전통놀이, 창작 인형극 '세 친구'
광주예술의전당
국악버전 '까치까지 설날은', 단소 2중주 '수룡음'



▶'보따리' 공연 장면. <ACC 제공>

명절하면 가장 연상되는 문화 기관이 박물관이다. 박물관에서도 다채로운 설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마련한 문화 한마당을 소개한다.

민속놀이 체험해용



'뽀뽀이 코믹마임'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복을 낚아봐용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은 푸른 용(龍)의 해 '설'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설 연휴 기간(설날 당일, 10일 휴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사는 만들기 체험부터 특별공연, 전통문화체험 등 다채롭다. 체험 프로그램은 전통의상 및 전통 놀이로 구성된 '전통문화 맘껏 놀아봐용(龍)', 옷을 던져 올해의 운세를 점쳐보는 '신년운세 옷점봐용(龍)'이 마련돼 있다.
'복을 낚아봐용(龍)'은 자석 낚시로 용을 뽑으면 청룡팬들을 증정하는 이벤트이다. '설맞이 만들기 체험해용(龍)'은 회차별로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영화상영 및 특별공연도 진행한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특별공연 '야외에서 흥겨워용(龍)'은 9일(전통문화예술단 '풍물굿')과 12일(뽀뽀이 코믹마임) 전시관 앞마당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특별공연을 즐겨봐용(龍)'(11일)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매직쇼(극단퍼플 '마법선물상자') 공연 프로그램이다. 사전 예약 및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참조. 한편 전시관에서 '용' 관련 전시품(총 9개)을 촬영하고 로비에서 사진을 제시하면 1인 최대 3개까지 '광복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애령 관장은 "박물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의미있는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나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관장 김상태)은 9일부터 12일까지(10일 휴관) 설날맞이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박물관 중앙정원에서 제기차기, 투호놀이, 굴렁쇠 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이 가능하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참가자들에게 선물인 담긴 복주머니를 증정하는 행사로 행운이 담긴 다양한 문구가 선물 안에 숨겨져 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박물관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후,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보여주면 복주머니를 제공한다. 1인당 1개씩 하루 50명까지 선착순 증정할 계획이다.
김상태 관장은 "이번 설 명절에는 '행운의 선물 증정' 등 관람객들과 소통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전통놀이 체험도 즐기고 전시 작품도 관람하는 의미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관장 최경화)은 우리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는 '나눔 체험 공연행사'를 준비했다. 한복을 입고 숨은 용을 찾아 sns에 인증사진(해시태그 포함)을 올리면 컬러링북(총 200개)을 증정한다. 용복주머니와 용떡이 만들기 체험이 각각 120세트씩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체험이 가능하다.
행사 기간 내내 야외마당에서는 민속놀이 체험이 운영된다. 굴렁쇠 굴리기를 비롯해 고리 던지기, 투호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설 당일(22일 오후 1시)에는 (사)광산농악보존회의 신명나는 '광산농악 판굿'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8호)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신창동마한유적체험관에서도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10일과 11일 캘리그래피로 가훈쓰기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경화 관장은 "정릉의 해를 맞아 지혜와 풍요가 넘치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렸다"며 "박물관에서 준비한 행사들을 통해 문화와 체험을 즐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열린 국립광주박물관 '설날맞이 문화행사' 모습.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ACC재단에서 지난해 진행한 다복다복 설날맞이 행사 장면. <ACC재단>